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주일예배 및 모임안내

주일1부예배	본당	9:00 am
주일2부예배	본당 & 라이브	11:00 am
Youth	아가페홀	11:00 am
유초등부	아가페홀	11:00 am
영유치부	본당 지하	11:00 am

화요소망학교	아가페홀	11:00 am
수요대학/기도회	본당	8:00 pm
새벽예배 (화-토)	본당	6:00 am
청년부예배 (토)	아가페홀	12:30 pm

WELCOME
WORSHIP
DISCIPLESHIP

[Matthew 11:28-30]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성직 목사	은퇴장로	김대희 배상진 임병갑 장기림 백근조
방송/청년	오정훈 목사		이덕흥 이창진 윤순화 오귀록
소망학교	이신웅 전도사	찬양인도	황규식
중고등부	문강한 전도사	지휘자/서무	박은실
유초등부	청빙중	반주자	노윤실사모(1부,새벽) 김은화 이화니(2부)
영유치부	김성은 사모	번역/통역	김예람 이화니 송명신
시무장로	백형수 윤순기	방송	조준한 Daniel Sewell

열방을 섬기는 이들

태 국	배중원	요 르 단	설총호/전경원
중 국	이주애	도미니카	이광호
케냐	이영규	아파치인디안	강원용
칠레	황신재	키르키즈스탄	바나바/다비다
모로코	김영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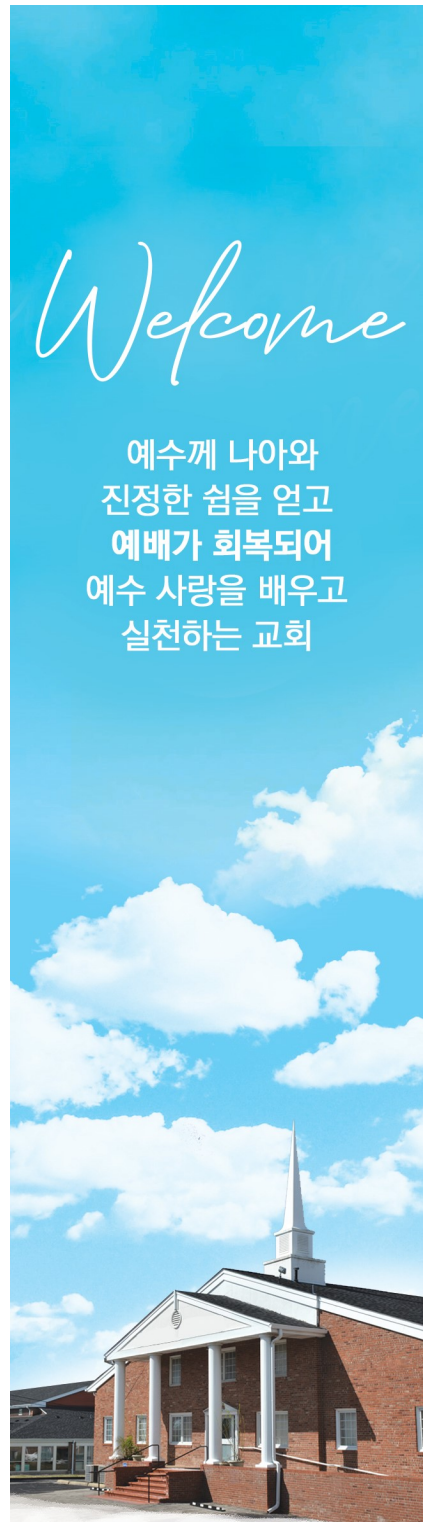
세인트루이스 한인소망교회

Korean Hope Presbyterian Church of St. Louis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Church (314) 275-2661 Agape Hall (314)786-5018

Email HopeSTL@gmail.com www.HopeSTL.org



Welcome

예수께 나아와
진정한 쉼을 얻고
예배가 회복되어
예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

4.16.2023

주와 동행하는 인생 3.

1부 9:00 AM 2부 11:00 AM

LIVE

주 일 예배

SUNDAY WORSHIP

경배와 찬양	찬양팀 (15분 전부터 시작됩니다)
* 기원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서교독	교독문 56번 시편 Psalm 128
참회의 기도	벧후 2 Peter 3:9
찬송	찬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다같이
기도	오귀록 장로
광고	인도자 / 김성직 목사
봉헌찬송	찬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같이
봉헌기도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성경봉독	로마서 Romans 7:21-8:12, NT p 249
말씀	주와 동행하는 인생 (3) / 김성직 목사
Sermon	The Life with the Lord (3)
*결단의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 축도	김성직 목사

* 일어서서 Please stand up

드리워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성막 (회막)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표였습니다. 그래서 '임재의 구름'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름이 덮힐 때, '여호와 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출 40:34-38).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구름이 와서 감쌌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원래 영광,

즉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의 영광이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꺼이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건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무죄 증명, 즉 칭의의 계속이며 확증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는 인정을 하나님께 받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하늘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구름입니다. 하나님은 구름으로 예수님을 감싸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 예수님의 승천, 다른 기록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대목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 24:50-53)"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남겨진 주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기억할 때 마다 늘, 지금도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모습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교회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3. 마무리

정리합니다.

부활은 주님의 칭의이며, 동시에 우리의 칭의입니다.

주님의 승천은 이 칭의의 확증이며, 계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죄가 있었다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쓴 채로 그대로 있다면, 예수님은 하늘에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늘 성전에 들어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시은좌 앞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16)"

'하늘에 오르사'라는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어떤 위로를 받고,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성경으로 풀어난 사도신경 (17)

수요대학에서 나누었던 “성경으로 풀어난 사도신경 (이운연 지음)”의 내용들을 공유합니다. 늘 내 안에 있는 신앙을 점검하고, 또 맡겨진 모든 곳을 바르게 세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13과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히브리서 4:14

1. 승천의 의미

먼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신앙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14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

‘믿는 도리’(homologia)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homo라는 말에는 ‘한 가지’, ‘같은’이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homologia(믿는 도리)는 ‘같은 내용을 말함’이란 뜻입니다.

이 말이 바로 ‘신앙고백’입니다. 신앙고백을 굳게 잡으라고 히브리서 설교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앙고백일까요? 4:14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고백을 굳게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신앙고백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한다는 사실. 십자가를 굳게 잡아야 한다고는 배웠는데, 승천을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지는 않지요?

자, 이제 이 교리를 굳게 잡기 위해서 우선,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2. 승천하시는 모습

그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가 봅시다.

(1) 사도행전 1:9~11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문구는 ‘구름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점점 올라가시다 보니 이제 꽤 높이 올라가셔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위에 있는 성경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구름이’ 다가와 예수님을 가렸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공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그날 이 성막에는 구름이 가득히

성시교독

교독문 56번 시편 Psalm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다같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주와 동행하는 인생 (3), 롬7:21-8:12”

< 본문 속으로 >

1.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다고 고백하나요? (7:21)

2. 때로는 바울 안에 어떤 법이 그를 사로잡는 것을 보나요? (7:23)

3.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시나요? (7:24-25)

4.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시나요? (8:3)

SATURDAY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2. 담임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과 권능을 주셔서, 귀한 영의 양식을 말씀으로 능력있게 전하고 주님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게 하소서.
3. 모든 리더십들에게 항상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반석 위에 모두 한 마음으로 동역하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풍성한 섬김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SUNDAY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1.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2.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두

함께 기도

이창진 장로님: 무릎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안성실 권사님: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배상진 장로님: 교통사고로 등에 골절을 입으셔서 보호대 착용 중입니다.

김기봉 장로님: 현재 호스피스 케어 중입니다.

송명신 자매님: 계속 건강회복중입니다.

이소연 자매님 딸 엘라: 어릴적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앓고 있습니다. 발목과 고관절 대수술 이후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장길자: 권사님: 협착증으로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의 선하심을 내 안에 서도 점점 회복해 나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3.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로 주께 납작 엎드리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MONDAY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하소서

1. 오직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께서 옳다 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2.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가 점점 맺히게 하소서.
3.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반면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소서.

TUESDAY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부모인 내가 먼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소서.
2. 하나님만이 중심 되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되게 하소서.
3. 성경적 가정의 모범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공경하며 순응하게 하소서.

WEDNESDAY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주께서 맡겨주신 자리이기에, 주께서 부여하시는 은혜와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2. 성경 말씀에 기초한 선택과 집중으로 학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3. 세상과 아무런 마찰이 없이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THURSDAY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1.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소서.
2. ‘코로나19’을 지나가며, 각 나라와 민족들이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3.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흠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서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FRIDAY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소서

1.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2.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아 거룩한 계보를 이어서 교회와 민족과 맡겨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3. 흔들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믿음의 뜻을 정하게 하소서.

<생활 속으로>

1. 주와 동행하는 인생은, “말씀 앞에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연약하고 죄악된, 곤고한 사람이 바로 나이기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단 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 앞에 비취지는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행여 내 죄악된 모습을 보지 못한채, 혹은 자꾸 숨긴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2. 주와 동행하는 인생은, “은혜에 빛진 자요, 주께서 빛어가시는 성화의 도구이기에, 나는 오늘날도 말씀 제대로 먹고 또 삶 속에 그대로 소화시키며, 내 안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라는 고백과 삶을 살아갑니다. 내 안에 영적 싸움을 나는 제대로 인지하며 살고 있는지, 그 싸움에서 나는 과연 성령의 검인 말씀대로 실제 행하면서 승리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소망소식

예배를 섬기는 이들

4/16		4/23	
대표 기도	오귀록 장로	대표 기도	백근조 장로
교회 안내	백영희 집사	교회 안내	손인자 집사
번역 통역	이화니, 송명신 자매	번역 통역	김예람, 송명신 자매
애찬 담당	독수리 구역	애찬 담당	요르단 구역
교회 청소	케냐 구역 (4월)	교회 청소	케냐 구역 (4월)

향기로운 예물 4/9/2023

주일	\$828	구역선교	\$200	주일학교/유스	\$0
십일조	\$3,560	첫열매	\$0	부활절	\$3,564
감사	\$870				
선교	\$0				
건축	\$0			헌금총액	\$9,022.00

헌금 외 수입금

합계 \$0
 입금총액 \$9,022.00

교회헌금 KHPC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온라인 HopeSTL.org/online-donation

‘로마서 성경필사’

예전에 요한복음 성경필사 했던 그대로 이번에는 로마서를 필사해서 세상에 딱 한 권 밖에 없는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기간을 2월 첫째 주일부터 5월 마지막 주일까지 잡았습니다. 개인의 노트로 필사하셔도 되고, 교회에 필사노트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해요.

소망학교 시니어 전시회

4월 18일 (화) 오후 1시에 개회 예배가 아가페홀에서 드립니다. 전시회 초청장이 본당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초청장을 문화 활동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도구로 가져가 여러 분들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간: 4월 18일 (화) -23일(주)

시간: 오후 1시-7시

오전 11시-오후 6시 (22일 (토))

교회행사

2월 5일 (주)
 ~5월 28일 (주)
 ‘로마서 성경필사’

4월 18-23일
 소망학교 사진과
 그림 전시회

교우동정

+ 새로 등록된 교인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구역 Youth 부 (문강한 전도사) 위해서

기도가정 신정자 집사님 가정 위해서